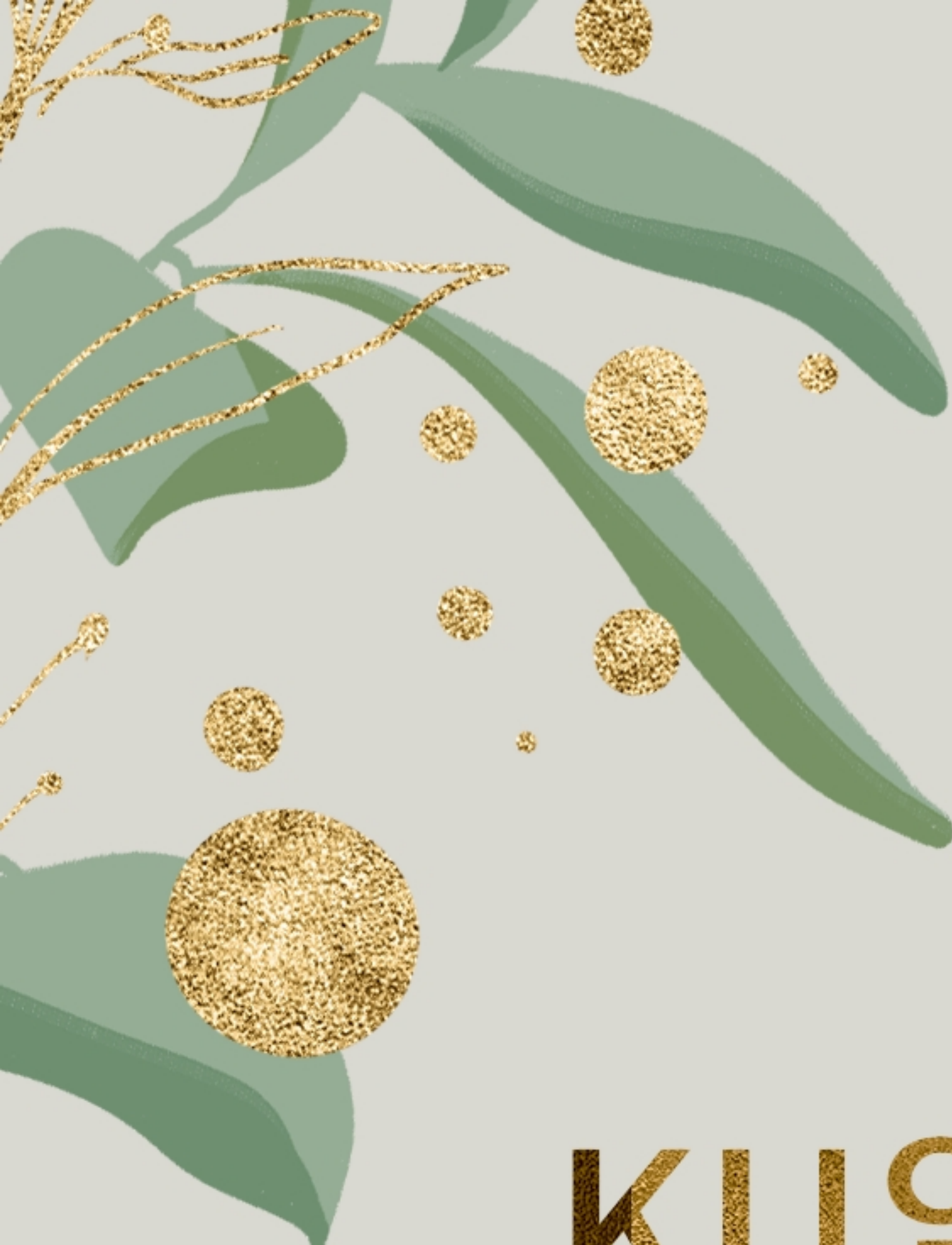




KU 일감철학회 출범식

⋮

일시: 2022. 11. 4 (금) 17:30
장소: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 223호

*We sincerely invite
you to come*

KU 일감철학회 출범식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건국대학교 철학과는 창과 60주년을 앞두고 그동안 쌓은 우수한 연구 성과와 인재양성역량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인문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KU 일감철학회를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 근본 물음을 던지면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사유를 통해 역사와 시대 상황에 근거한 총체적인 지적 실천을 실행하는 것이 인문학의 진정한 역할일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는 중단 없이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다수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단순한 실용지식의 습득이나 유명인사들의 강연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그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대학 역시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역사와 시대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그에 걸 맞는 철학적 질문과 응답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사회는 여전히 둔감하기만 합니다. 한국사회의 대학이 진리 탐구와 우수인재의 육성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시대 흐름에 휩쓸려 직업인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처럼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 역시 아프지만 새겨들어야 할 지적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롭게 하는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고 진리로 향하는 학문으로 새로운 지식을 사회에 보급하는 것이 대학과 구성원들의 근본 사명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국대학교 철학과는 이제 그 사명을 다시금 성찰하면서 새로운 변화와 헌신에 나섭니다. KU 일감철학회는 철학과 인문학에 주어지는 시대 요구에 응답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려는 우리 건국대학교 철학과의 첫 번째 실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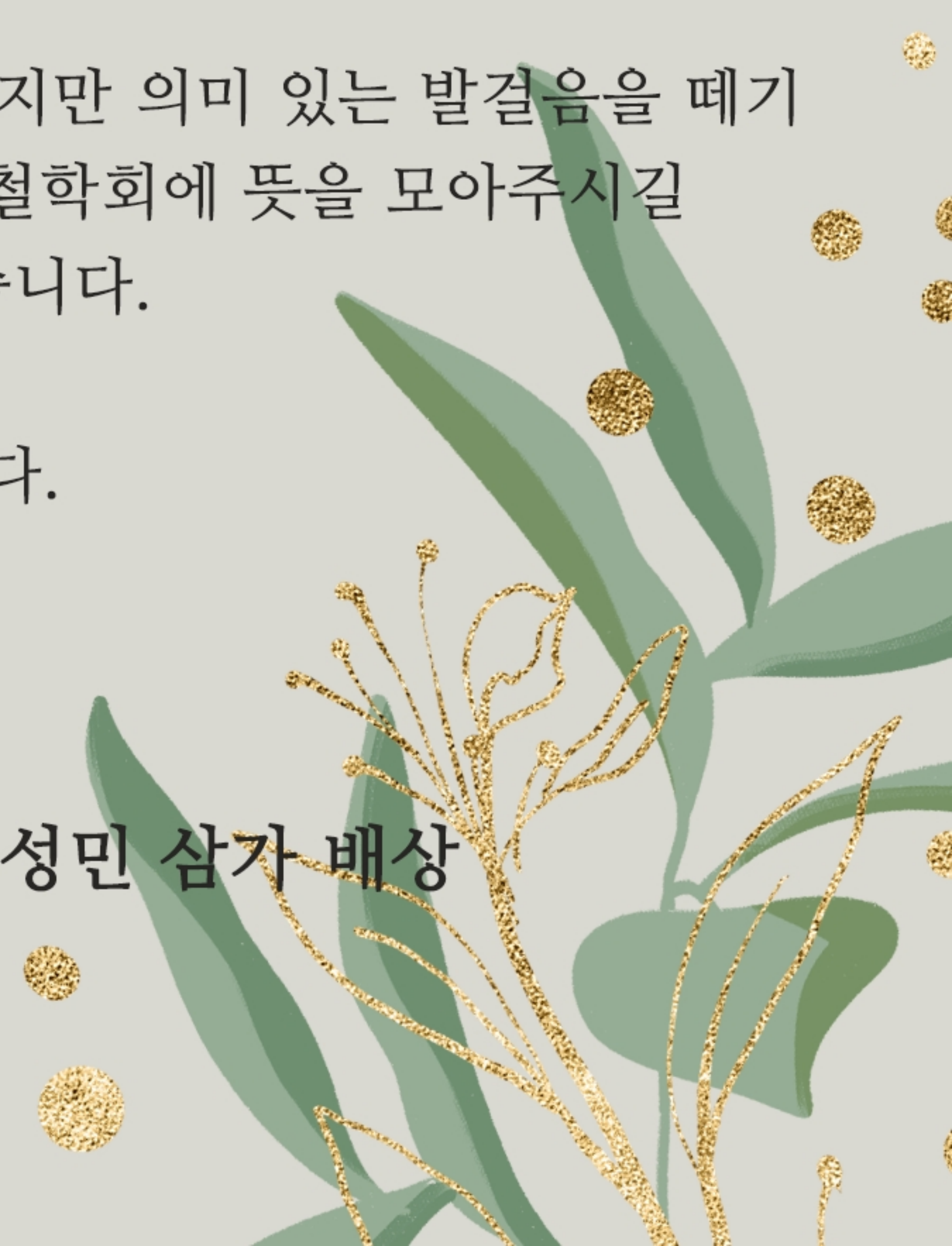
KU 일감철학회의 목표는 인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 향상에
기여하면서 시민사회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철학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우리 대학 전체와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표 아래 저희 KU 일감철학회는 앞으로 대학과
지역, 시민사회의 깊고도 지속적인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생명력
가득한 철학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할 것입니다.

KU 일감철학회는 한편으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다른 한편으로
지역 시민 사회에 높은 수준의 교양을 공급하는 ‘교양의 샘’ 역할을
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와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노력에
진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선 여러 선생님들의
각별한 지지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모쪼록 걸음 하시어 작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을 떼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는 KU 일감철학회에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U 일감철학회 회장 김성민 삼가 배상



KU 일감철학회 출범식 및 기념 강연회 순서

⋮

시간	내용	사회: 김석 KU 일감철학회 부회장, 건국대학교 철학과 교수
1부 인사와 소개		
17:30	내빈 소개 및 개회사	김성민 (KU 일감철학회 회장, 건국대학교 철학과 교수)
17:40	보고: KU일감철학회의 비전과 사업소개	김도식 (KU 일감철학회 수석부회장, 건국대학교 철학과 교수)
17:55	축사	전영재(건국대학교 총장) 김경호(광진구청장) 서유석(세계철학연맹 FISP 한국대표) 김성국(건국대 철학과 동문회장)
18:15	기념촬영	
18:20	COFFEE BREAK	
2부 출범 특별 강연		
18:30	기념강연: 포스트 모던 시대의 철학	강영계 (전 건국대학교 부총장, 철학과 명예교수)
19:30	광고 및 감사의 말씀	정상봉 (건국대학교 철학과 교수)
19:40	폐회와 만찬	